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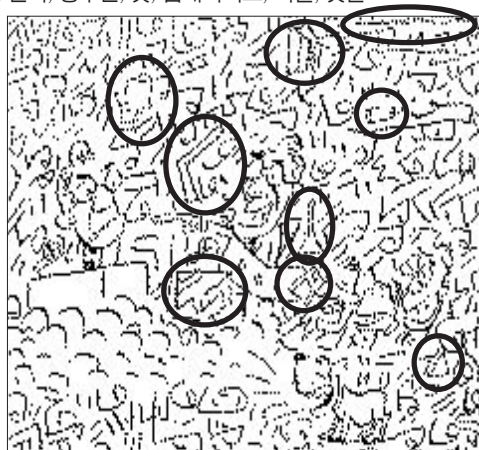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79>



찾아보세요! 허마, 아이스크림, 열대어, 팬츠, 양주잔, 뭇, 담배피이프, 화살, 칫솔

집들이

10년 만에 집을 장만한 남자가 처음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한 친구에게 집안을 구석구석 안내하고 있는데, 마당 구석에 있는 큰 개집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친구가 물었다. "자네가 개를 좋아하는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개는 어디 있나?"



지난주 정답

프라이팬, 립스틱, 팬이, 다리미, 사람 옆 얼굴, 열대어, 바늘, 깔때기, A자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백부선 <광주시 동구 소태동> 신오심 <해남군 해남읍 백아리>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10년 3월26일 안중근 의사 서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하얼빈역에 잠입하여 러시아군의 군례를 받는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했던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26일 중국 다롄 뤼순 감옥 형장에서 생을 마감했다.



26일 안중근 의사의 순국 98주기를 맞아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로 안중근 의사의 순국 98주년이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원혼은 머나먼 이국땅을 헤매고 있다.

안중근 의사는 처형을 앞두고 "유해는 고국에 못 돌아가고 감옥묘지에 묻히게 될 것이다. 만약 유족의 손에 건네지면 하얼빈공원 인근에 묻었다가 고국에 반장하라" 두 아우에게 밝혔다.

남과 북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정확한 매장위치를 몰라 번번이 실패에 그쳤다.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 현장이 개발되고 변형되어 위치 확인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2005년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추진키로 하고 2006년 6월 공동 조사를 통해 뤼순 감옥 뒤편 일대를 유력한 매장지로 추정했다.

하지만 중국이 외부에 이 지역을 개방하지 않는데다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중국 당국의 협조를 얻는 것도 힘들었다.

최근에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예정지 일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면서 국권이 회복된 뒤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했던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바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25일 이병구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을 단장으로 민·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조사단이 중국 다롄에 도착해 다롄시의 유해 발굴 일정 협의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안 의사가 순국일부러 열흘간 현장조사를 한 뒤 본격적으로 발굴작업을 벌이

게 된다. 이번 활동에는 북측은 참여하지 않는다. 조사단은 2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통한 발굴 구획을 확정하고 장비 투입과 인원 증원을 통한 조사활동을 벌여 실제 발굴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발굴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를 안타깝게 하고 있지만 국민은 안 의사의 유언을 받을 수 있도록 유해 발굴 조사단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빙 센스
양념 만들기
요리의 맛을 한층 풍부하게 하는 양념들의 쓰임새가 많습니다.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파
흰 부분에 광택이 있고 심심한 부분을 골라 깨끗이 씻은 뒤 다져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두면 고유의 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2~3일 분량만 만들어 두는게 좋습니다.
▶생강
물에 불려 두었다가 손가락으로 살살 곱질질을 벗겨낸 뒤 밀봉해서 보관하세요. 요리에 따라서 다지거나 편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바삭 말려 가루로 만들어 보관하면 상할 염려없이 요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깨소금
통깨를 바가지에 담고 물을 부어 쪽집이를 골라내고 프라이팬에서 센 불로 볶아줍니다. 깨가 튀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타지 않도록 볶아주면 됩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3월 26일(음 2월 19일)
36년생 단순한 방법이 최상의 지름길. 48년생 재물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되니 이웃과 나누라. 60년생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재워진다. 72년생 주변의 친절을 찾아보라. 84년생 밖의 일은 아랫사람에게 부탁하고 내부의 일을 챙겨라.
37년생 마음의 문을 열면 희망도 보인다. 49년생 옛 친구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61년생 용기 있게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라. 73년생 아침은 즐거우나 오후는 무료. 85년생 주변의 이성에 귀 기울여 인기가 상승한다.
38년생 가정불화는 피하라 불연이면 이별 수도 보인다. 50년생 자신의 입을 조심하라 스스로 만든다. 62년생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74년생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39년생 과거에 연애지 마라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좋으리라. 51년생 인생의 또 한 번의 도전. 63년생 대부분의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내용이다. 75년생 높은 생각은 올바른 행동을 낳는다.
40년생 오래된 문자가 큰 재물로 변한다. 52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64년생 친구와 좋은 곳에서 일을 꾸민다. 76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연애지 말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라.
41년생 오늘은 고통이지만 내일을 기약하라. 53년생 다투지 말고 협상에 응하라 갈자루를 쥐었다. 65년생 달콤한 말은 독이니 속하지 마라. 77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금화만 실이 된다.
42년생 기본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니 착실하게 기다리라. 54년생 작은 것이 소중하니 오히려 주의하라. 66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43년생 지식보다 지혜를 보여줘라. 55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벌리면 손해가 크다. 67년생 멀리서 귀인이 찾아온다. 79년생 代價가 없는 인덕은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리라.
44년생 마음이 허하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56년생 분다수를 잘하면 실물은 없으리라. 68년생 직장에 신경을 써라 직장은 자신의 희망이다. 80년생 소원했던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
45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손해도 비켜간다. 57년생 하루가 대단히 불행하리니 지낸다. 69년생 심내 목은 체증이 내려간다. 81년생 뒷사람의 충고를 들으면 잠을 자다가도 떡을 얻는다.
46년생 불요불급한 구매로 소비가 생긴다. 58년생 현실보다는 큰 꿈을 가져라. 70년생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82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니 제사에 철저히 하라.
47년생 해결이 안 되는 일은 없다 걱정을 버려라. 59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71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83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앞은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돌진하라.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양주바둑협회 연구생 리그전
전하의 요충 5보(56~71)
흑 ▲는 '가'로 중앙을 두는 것이 대세점이다. 그러나 임지성군은 형세가 좋지 않다고 보고 변화를 구하고 있다. 백 56이 강지수군의 실리취향을 드러낸 수였으나 대알차이었다. 이 수로는 무조건 58의 곳을 꼬부릴 자리였다. 그런데 임지성군이 상대의 완책을 응징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57로 한칸뛰자 오히려 56이 좋은 수가 되어 버린다.
<참고도>
<오규철 9단·본부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박승현, 한국리그 출전 불허
군 복무 중인 박승현 5단의 KB국민은행 2008 한국바둑리그 진출이 좌절됐다. 한국기원은 25일 "긴급 소집된 대의원 회의에서 바둑리그 예선을 통과한 박승현의 본선 리그 출전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육군 상병인 박승현은 이번 예선전에서 이용한 5단계에 승리했지만 신분상의 문제로 최종 출전 여부가 미뤄졌다. 한국기원은 박승현의 대체 선수로 본선 시드가 주어질 랭킹 28위 이내의 선수와 보호지명을 받은 선수를 제외한 최상위 성적 선수를 출전시키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25>
How was the meeting? 그 회의 어땠어요?
A: How was the meeting?
B: It went all right.
A: Did you get the contract?
B: We're not sure yet. We're going to meet again tomorrow.
A: 그 회의, 어땠어요?
B: 잘 되었어요.
A: 계약은 했나?
B: 아직은 확정하지 못했어요.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 그 콘서트는 어땠어?
= How was the concert?
\* 예배는 어땠어?
= How was church?
\* 데이트는 어땠어?
= How was your dat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25>
他(ほか)の人はどうしましたか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A: 金さん、一人(ひとり)ですか。他(ほか)の人はどうしましたか。
B: 夕飯(ゆうはん)が終(お)ったので `みんな部屋(へや)へ戻(も)りました。
A: い、いつも日曜日(にちようび)は賑(にぎ)やかなのに、今日(けふ)はどうしたのですか。
B: あした試験(しけん)があるのでみんな勉強(べんきょう)しています。
A: 김씨, 혼자입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B: 저녁 식사가 끝나서 모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A: 항상 일요일은 북비는데 오늘은 어떻게 된 거죠?
B: 내일 시험이 있어서 지금 모두 공부하고 있습니다.
一人(ひとり): 혼자, 한명
他(ほか)の人(ひと): 다른 사람
飯(はん): 저녁밥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102>
里边有什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A: 这是什么?
zhèshì shénme
这是什么呢?
B: 这是小白兔的房子。
zhèshì xiǎobáitu de fángzi
这是小白兔的房子。
A: 里边有什么?
lǐbian yǒu shénme
里边有什么呢?
B: 有床, 有桌子。
yǒu chuáng yǒu zhuōzi
有床, 有桌子。
A: 이것은 무엇입니까?
B: 이것은 작은 흰 토끼 방입니다.
A: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B: 침대와 책상이 있습니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712>
起死回生(기사회생)
일어나 기, 죽을 사, 돌아올 회, 살 생
기사회생(起死回生)은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난다는 뜻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상황이 호전됨을 비유한다. 또 이 말은 죽을 사람을 살릴 정도의 크나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춘추시대 노(魯)나라 애공(哀公) 원년에 오왕(吳王) 부차(夫差)는 3년 전에 죽은 아버지 합려(闔閭)의 원수를 갚다가 다리에 중상을 입었지만 월왕(越王) 구천(勾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이때 월나라의 대부(大夫)인 종(種)이 구천에게 오나라와 화약(和約)을 맺도록 권하자, 구천은 이 말대로 대부 제계영(諸稽)을 보내 오나라에 보내서 화평(和平)을 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부차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월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용서를 하면서 말하길, "이것은 죽은 사람을 일으켜 백골에 살을 붙임이로다(起死人而肉白骨也). 내 어찌 하늘의 재앙을 잊지 못하고, 감히 군왕의 은혜를 잊겠는가?"라고 하였다. 즉 오왕 부차는 월나라에 대하여 죽은 사람을 되살려 백골에 살을 붙인 것과 같은 큰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이다. 또한 '어씨춘추(呂氏春秋)' 별류편(別類篇)을 보면, 공손작(公孫棼)이라는 자가 "나는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보인다. 여기서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유래 되었다.
<한여원(韓孝嫻)>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